

## 워터파크 간날

글 .손시강

아침에 일어나서 워터파크 가려고 짐을 쌌다. 너무 신나서 워터파크로 뛰어서 들어 갔다 파도가 덮치는걸 탔는데 파도가 쉬잉쉬잉 무섭게 덮쳤다. 그리고 미끄럼틀 작은걸 탔는데 내가 탄쪽이 너무 딱딱해서 다리가 너무 아팠다.미끄럼틀 다타고 파도도 다 타고 나왔는데 엄마가 없어서 엄마가 오셨다. 많이 놀고 놀고 또놀다가 이제 집으로 가야해서 너무너무 아쉬웠다 다음에도 또 놀러올거다